



KIA 日 전훈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피터팬이 마구 던져요”

(魔球)



한기주 서클 체인지업 개발 코치 “구속 130km...위력적”

“코치님, (한)기주가 마구(魔球)를 던져요.”

4일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카하마 구장에 차려진 KIA스프링캠프 훈련장.

투구 연습 마친 투수 윤석민(21)이 김태원 투수코치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다. 내용은 한기주의 서클 체인지업이 이상(?)하다는 것.

관바로 확인작업에 들어간 김 코치도 한기주의 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연습해 온 서클 체인지업이 홈 플레이트를 지나가 직전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김 코치는 “석민이의 말처럼 정말 마구 같이 느껴졌다”면서 “공이 흔들리면서 들어오다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툭 떨어지는 데 일품이더라”고 말했다.

올 시즌 ‘빛문 봉쇄’의 특명을 받은 ‘피터팬’ 한기주(20·KIA)가 일본 스프링캠프에서 신무기인 서클체인지업 장착을 완료했다.

엄지와 검지끝을 붙여 ‘o’자로 만들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공을 감싸 잡은 모양 때문에 일명 ‘OK 체인지업’으로도 불리는 서클체인지업은 역회전을 만들어 심커처럼 빠르게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직구처럼 오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탓에 타자들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스윙과 땅볼 발생빈도도 높은 구질이다.

한기주가 이날 던진 서클 체인지업은 시속 130km 초반대로 오다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갑자기 떨어졌다.

여기에 주무기인 150km를 넘나드는 광속구와 빠른 슬라이더도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기주는 “그동안 체인지업 연습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감각을 찾았다”면서 “직구와 슬라이더 이외에도 자신있는 구질을 하나 더 갖게 돼 무척이나 든든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기주처럼 강속구 투수의 경우 왼쪽으로 휘어들어가는 슬라이더와,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게 되면 그 위력은 배가 된다. 지난 시즌엔 한화 류현진이 서클체인지업과 강속구를 배합해 짝꿍한 재미를 봤다.

특히 팔의 회전력이 뛰어난 한기주는 슬라이더도 웬만한 투수의 직구 스피드

와 맞먹는 141~143km대를 오가기 때문에 타자들 사이에선 공포의 구질로 통한다.

이는 슬라이더를 던질 때 팔의 궤적과 릴리스포인트(공을 놓는 순간이나 지점), 팔로스루(공을 던진 뒤 마무리 동작)가 직구와 같기 때문이다.

서정환 KIA 감독은 “(한)기주는 일단 직구와 슬라이더가 좋기 때문에 체인지업만 완벽하게 구사한다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최고의 투수가 될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무리 전란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계투수가 40~50개 정도에 불과해 선발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잘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지 사이드(70~80%의 힘으로 던지는 피칭) 연습이 한창인 한기주는 오는 15일부터 100% 볼런 피칭에 들어갈 예정이다.

/lucky@kwangju.co.kr

■ 한기주 볼 잡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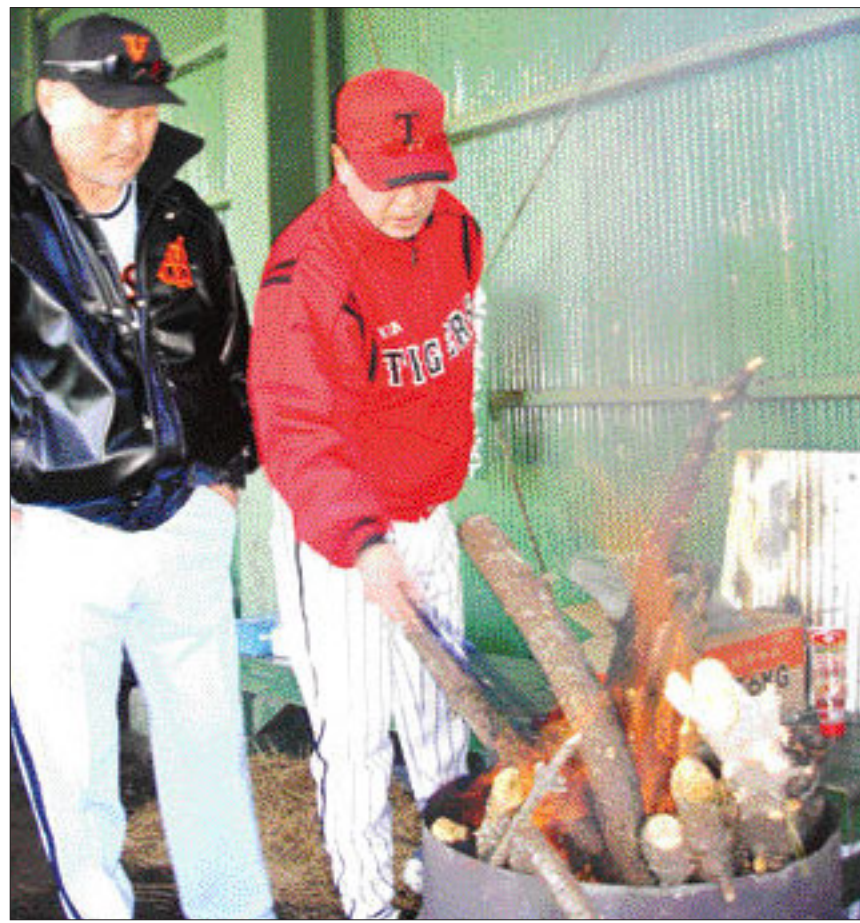
〈서클 체인지업〉



〈슬라이더〉



〈직구〉



서감독 “난로 당번은 나”

서정환 KIA 감독이 4일 오전 KIA 캠프를 찾은 이광은 연세대 감독과 담소를 나누는 등 연습 피칭 후 투수들의 갑작스런 체온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해 놓은 난로에 장작을 집어넣고 있다.

/lucky@kwangju.co.kr

훈련장에 가요 ‘땡벌’ 유행...서감독 “옛날 내 별명인데”

■ 여기는 미야자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워워~”

4일 오전 10시 KIA 스프링캠프가 마련된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카하마 구장에 느닷없는 한국 가요가 울려 퍼졌다.

그동안 훈련장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일본노래에 짜증(?)을 느낀 일부 선수들이 한국가요를 틀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오전 훈련 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담소를 나누던 선수들은 요즘 유행곡인 ‘땡벌

(노래 강진)’이란 노래가 흘러 나오자 흥이 난 듯 큰 소리로 따라부르는가하면 심지어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때는 등 잡시나마 힘든 훈련을 잊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를 훈련장 한켠에서 지켜보던 서정환 KIA 감독이 갑자기 빙글레 웃더니 “한 때 내 별명이 땡벌이었다”며 별명에 얽힌 일화 한 토막을 꺼내놨다.

경상중학교 시절 키가 또래 선수들에 비해 머리 하나가 차이 날 정도로 작았다는 서 감독은 “감독이 박태일 선생님이었는데, 159cm밖에 안된 키로 뛰어나다는 모습을 보곤 땡벌(땡벌의 경상도 사투리)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면서 “다행히

고교시절 18cm가 자라면서 이 별명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프로 데뷔 후 선수 소개란을 보니 내 별명이 땡벌로 돼 있더라”고 말했다.

서 감독은 “예전엔 나훈아가 이 노래를 부를땐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최근 다른 가수가 부른 뒤부터 갑자기 인기를 끌더라”면서 “한동안 잊고 있던 내 별명이 노래로 나와 히트까지 하니 나도 기분이 좋다. 올 시즌엔 우리팀도 이 노래처럼 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투수 연습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lucky@kwangju.co.kr



‘이승엽 괴력’ 홈런포 펑펑

4일 오후 일본 미야자키 선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전지훈련에서 이승엽이 타격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캠프훈련서 맹타...스윙 39개 중 13개 담장넘겨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31)이 캠프훈련에서 5연속 홈런을 쏘아 올려 4번 타자다운 진면목을 과시했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3일 이승엽이 전날 규슈 미야자키현 선마린 스타디움에 설치된 스프링 캠프 이틀째 훈련에서 스윙 39개에서 5연속 홈런을 포함, 모두 13개의 홈런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이승엽은 이날 화려한 타격 솜씨를 발휘, 한국에서 받은 고편 웨이트트레이닝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지난해 10월

왼쪽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뒤 열려했던 주위의 불안도 깨끗이 씻어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승엽은 훈련을 마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어제보다 날씨가 좋아 힘을 더 낼 수 있었다”면서 “아직 100% 전력을 쏟아 부은 것은 아니다”라며 웃었다.

그는 또 호시노 센이치(60) 일본 국가대표 감독의 훈련캠프 방문에 대해서는 “나는 자이언츠 멤버이기 때문에..”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신문은 전했다.

/lucky@kwangju.co.kr

위창수 공동 20위

FBR오픈 3R 8언더파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FBR오픈에서 8언더파를 치며 10위권 진입의 희망을 이어갔다.

위창수는 4일(이하 한국시간)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스코츠데일TPC 스타디움코스(파71·7천216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8언더파 205타로 비제이 싱(피지) 등과 함께 공동 20위를 기록했다.

일몰로 전날 열 다섯 홀 밖에 소화하지 못해 남은 3홀에서 보기 1개를 범해 4언더파로 3라운드를 시작한 위창수는 첫 홀인 10번 홀(파4)에서 보기를 해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곧바로 11번 홀(파4) 버디로 만회한 뒤 이후 버디만 4개를 더 보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10위그룹과 3타 차이인 위창수는 최종 라운드에서 선전할 경우 시즌 두번째 톱 10 진입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나상욱(23·코오롱)은 버디와 보기를 나란히 5개씩 기록해 이븐파 71타에 그치며 2언더파 211타로 공동 64위에 처했다.

신지애 공동 5위

LET 호주여자오픈 최종

‘여자 백상어’ 카리 웹(호주)이 총상금 30만유로가 걸린 유럽여자프로골프(LET) 겸 아시아여자프로골프 투어 MPS호주여자오픈 정상에 올랐다.

한국 선수 중에는 신지애(19·하이마트)가 공동 5위에 올라 최고 성적을 거뒀다.

웹은 4일 호주 시드니 로열 시드니골프장(파 72·6천72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웨이윤제(대만)를 6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2000년과 2002년 이 대회 정상을 차지했던 웹은 5년 만에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국내파 원정대’는 생소한 코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신지애는 3라운드까지 합계 2오버파를 치면서 언더파 대열에 끼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 뒷거래 3타를 즐기면서 순위를 끌어올렸으나 선두를 추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선주(20·하이마트)가 함께 이븐파 288타로 공동 7위에 올랐고, 박희영(20·이수건설)은 합계 2오버파 290타로 공동 10위에 턱 걸이해 한국 선수들 3명이 톱 10에 들었다.

지은희(22·LIG-김영주골프)가 합계 3오버파 291타로 공동 13위를 했고, 나다예(20·리앤코)와 양희영(18·삼성전자)은 합계 5오버파 293타로 공동 20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골드레이크CC 사원 골프대회

골드레이크CC(사장 김영섭)는 최근 직원과 종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골드레이크CC 종사원 골프대회’를 가졌다.

이번대회는 종사원간의 친목도모 및 사기를 진작하고 종사원이 직접 플레이를 함으로써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전 교육차원에서 이뤄졌다.

대회에서는 허광용(26·경기과)씨가 1언더파 71타로 우승(백카운트 방식)을 차지했으며 정만성(28·경기과)씨가 1언더파 71타 준우승, 유효환(26·경기과)씨가 이븐파 72타로 3위를 기록했다. 이시형(33·코스관리부)씨는 5오버파 77타로 메달리스트 상을 수상했고, 이인영(34·프로샵)씨가 골프코스 5번(파4·345m)홀에서 243m를 기록해 통코스트, 김진갑(28·경기과)씨가 골드코스 7번(파3·133m)홀에서 홀핀 1m20cm 가까이 불어 니어리스트상을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